

사천N

SACHEON MAGAZINE

2020. 11월 (통권295호)



낙엽의 노래

혜원 박영배

인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문밖 서성이는 이름을 지우며
눈물 나도록 붙들고 싶은
붉은 정열을 고이 접고
무량한 허공 그 깊은 골짜기로
흘러가는 것이다

돌아보면 눈 시린 젊은 날
굽이굽이 뜨거운 불꽃으로
그대 산허리를 붙들고 울부짖었지
그 사랑 피기도 전에 첫서리 내리고
계절은 소문만 뿌려놓은 채
그만, 침묵의 늪으로 가자 한다

누가 그 섭리에 저항하겠는가
타고나면 한 줌의 재가 되어
열반으로 내닫는 먼 여행의 길을
배추흰나비처럼 내 몸을
시월 지친 허리에 둘둘 감고
진한 그리움으로 잠드는 것이다



혜원 박영배

- 사천시 문인협회장 역임
- 박재삼 문학 선양회장 역임
- 한국 문인협회 회원
- 사천시 문화재단 이사 역임



CONTENTS

VISION

04

- 04 기획 - 고성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본궤도'
- 07 특집 - 사천바다케이블카 야간운행
- 08 시정소식 - 읍면동 소식
- 09 의회소식 - 의정활동-5분자유발언
- 김여경 사천시의원

STORY

12

- 12 사람&단체 - 서경애 사천미용지부장
- 이규윤 곤양향교 전교
- 16 동네한바퀴 - 진널전망대
- 18 마시뜨라 - 삼천포종합시장 맛집투어
- 20 인물 - 김정기 작가
- 23 사천의 자랑 -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
- 24 연재코너 - 우리 문화유산 둘러보기: 모현재
- 어때요? 항공산업 25탄
- 길이름따라 떠나는 사천이야기: 구월길
- 사천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은거행의

WITH

31

- 31 문화생활정보 - 시정알림 마당
- 34 건강 - 위대장암 예방과 관리는 건강검진으로
- 35 독자마당 - 2020 추석풍경
- 36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고성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본궤도’ “교통 불편 해소 통해 시민숙원 해결하겠습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GGP)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공토지비축 업무 협약체결, 토지분할측량 의뢰 등 실질적인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부지 분할측량과 지장물 조서 작성작업이 진행됨으로써 토지은행을 통한 보상실무는 내년 2~3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은행에 500여 필지에 이르는 편인지 보상을 위탁하고, 보상완료 후 해당 토지를 이관받아 오는 2023년에 착공해 2년내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개설될 발전소 우회도로는 GGP가 사천시 경계지역에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출입하는 각종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인데, 삼천포도서관 뒤편에서 용강정수장을

거쳐 옛 향촌동농공단지 진입로 입구까지 길이 4.3km, 폭 18m, 왕복 2차선 도로로 건설됩니다. 이번 우회도로 개설사업에는 총 45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천시는 토지 등의 보상비와 설계비 230억원, GGP는 공사비 220여억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시는 협약체결 후 3년 이내에 50%, 4년 이내에 100%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GGP는 시로부터 인수완료 후 2년 6개월 이내에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송도근 사천시장 취임후 사천시민대책위원회(NSP)를 정비해 삼천포화력발전소와 GGP를 대상으로 우회도로 개설요구를 하면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공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천시와 GGP가 T/F팀을 구성해 수년간 12차례에 걸쳐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GGP의 일관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촌동발전위원회가 범시민규탄대회, 자동차 준법 출근투쟁, 쫓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했고,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주민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시민규탄대회가 장기간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송도근 시장이 수차례에 걸쳐 임진규 대표이사를 만나 입장조율에 나서는 등 오랜 진통 끝에 결국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협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주)과 SK건설(주), SK가스(주), KDB인프라자산운용(주)이 투자한 GGP가 총사업비 5조1960억원을 들여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91만㎡에 추진 중인 발전회사입니다. 생산전력은 1040MW입니다.

발전소 우회도로 왜 필요한가요?

GGP에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91만㎡ 부지에 1,040MW 규모 발전설비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을 뿐 체감 피해척도인 주변지역 인구비율은 사천시가 고성군 대비 14배가 많아

사천시민들의 피해 정도가 훨씬 컸으나, 피해지역인 사천시민에 대한 대책 및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 추가건설이 이뤄지면 사천시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발전소 추가 건설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각종 물류 운반용 대형차량이 시내 간선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시민안전의 위해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준공 후에도 출퇴근 차량 등 교통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 발생이 예상돼 이를 해소하고 발전소와 주변지역의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015년 5월 발전소 피해대책 촉구를 위한 시민 결의대회 이후 시민대표, 시의원, 사천시, GGP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12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12차례의 실무협상에도 상호 의견의 차이만 확인하였을 뿐 쉽게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사천시와 GGP 양 기관의 대표자 협상을 시작으로 사천시의회의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촉구 대정부건의안 채택 그리고 우회도로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천시민들의 우회도로 개설 촉구 집회와 5차례에 걸친 양 기관 대표의 협상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4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년 넘게 끌어온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노선 길이는 4.3km, 폭은 18m로 개설하며, 도로개설을 위한 부지보상 및 설계





비는 사천시가, 도로건설비는 고성그린파워에서 부담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GGP와 협력해 우회도로 개설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단계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재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2020.6.25.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국토부와 LH에서 시행 중인 공공토지비축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은 LH에서 토지은행적립금을 재원으로 보상관련 전문팀을 구성하고 토지비축사업에 착수한 뒤 토지비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사천시)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시는 토지의 사용시점부터 5년에 걸쳐 공급가격을 분할 납부하게 되며 이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총 예산을 확보했

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GGP와의 협약 내용에 있는 조건(3년 내에 보상대상 부지의 50%이상 4년 이내에 100% 부지매입 완료)에도 무리 없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토지비축 업무협약에 따라 토지매입을 착수한 뒤 약 2년에 걸쳐 토지비축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우리시는 토지비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성그린파워에 사천시 우회도로 개설협약서를 근거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성그린파워는 우리시로부터 부지 인수를 완료한 후 2년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도로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사천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이 발전소 우회도로가 개설완료 되면 화력발전소 관련 대형차량의 우회도로가 확보됨으로써 고질적으로 대형차량의 시가지 내 운행으로 교통불편을 호소하던 시민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야간운행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방역체제가 사회적 거리 두기 1 단계로 완화된에 따라 금·토요일 야간에도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운행한다.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야간운행에 따라 전체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평일인 월~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매표는 운행종료 1시간 전에 마감된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안전한 케이블카 여행을 위한 비상 방역 관리에 돌입했다. 공단은 단체버스일 경우 발열 체크를 통해 손님 중에 37.5도 이상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버스를 그대로 돌려보낸다. 탑승장에서는 열감지 화상카메라로 방문객 상태를 체크한 후 열이 없는 손님들만 캐빈 탑승을 허용한다.

모든 방문객은 UV-C 자외선·적외선으로 각종 바이러스를 100% 살균하는 무균 소독기를 거쳐야 케이블카 출입이 가능하다.



SACHEON NEWS

음면동 소식

남양동 시민안전봉사대, 코로나19 예방 홍보 활동



남양동시민안전봉사대(대장 정진균)가 지난 10월 6일 관내 주민들의 이동과 접촉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활동을 가졌다. 정진균 대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손소독제를 배부했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남양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촌동건강위원회, '다함께 건강체조 교실' 운영



사천시 향촌동건강위원회(위원장 정영춘)가 12월 중순까지 향촌2 어린이공원에서 '다함께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함께 건강체조 교실'은 △면역력 증진운동 △건강힐링운동 △웃음체조 등의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7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하반기 찾아가는 워크숍' 열어



사천시 제7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단장 김혜숙)이 10월 6일 사천시청에서 경남도 주관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향후 비대면 및 온라인 운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과 함께 우수정책 제안자 특강 및 도정 참여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우리 지역문제 및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쳤다.

자연보호선구동협의회, 망산공원 일원 수국꽃길 조성



사천시 자연보호선구동협의회(회장 김형내)가 지난 10월 8일 망산공원 일원에서 2020 선구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산공원 주변 정화활동 외에도 산책로 수국꽃길 조성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000본 가량의 수국은 2022년 초여름부터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사회단체봉사회,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기탁



사천시 기업·사회단체봉사회(회장 손성호)는 지난 8일 향촌동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전달해 달라며 150만 원 상당의 KF94마스크 1,000매를 기탁했다. 이번엔 전달받은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사천시어린이도서관, 부분 개관 확대 운영



사천시어린이도서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10월 13일부터 부분 개관하고 있다. 부분 개관 운영으로 자료실 대출반납, 회원가입만 가능했던 서비스에서 자료실 내 열람까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확대로 휴관에 들어가면서 지난 8월 25일부터 운영 중단됐던 3분기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재개한다.

SACHEON NEWS

의회 소식

사천시의회 - 5분자유발언

**김경숙 의원(국회의원, 동서금·벌용·향촌)**

벌리 회전교차로는 삼천포지역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많은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천포 지역 상권 중심인 벌리동 회전교차로는 시계탑 하나뿐, 낮에는 삭막하고 밤에는 제대로 된 조명조차 없어 캄캄한 도시를 방불케합니다. 상권의 중심인 벌리 회전교차로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 시민과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야간조명과 조형물 설치를 제안합니다. 에너지 소비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야경을 통한 관광인구 유입이라는 우리 사천시의 관광 환경적 측면에서는 절실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최인생 의원(국회의원, 사천읍 정동·사남·용현)**

남강댐 방류로 인해 우리 시로 유입된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청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거비용만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처리 비용은 국비 지원이든 도비 지원이든 간에 우리 시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남강댐방류로 인한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전액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합니다.

**전재석 의원(국회의원, 동서금·벌용·향촌)**

지난 2006년 발족한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평상시에는 재난취약시설 사전 예찰과 방재 활동, 주민대피 및 구조와 응급복구 현장 지원,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 전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율방재단 지원자가 다소 미흡하다고 합니다. 예찰 활동이나 재난 시 현장 방문에 필요한 안전도, 피복, 안전화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도 지원 미흡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자율방재단이 안전하게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구성 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현 의원(국회의원, 축동·곤양·곤명·서포)**

지하수, 전기 및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디지털 자동온도조절 장치를 이용한 "수막시설 하우스 양수시스템"이 개발돼 하우스 재배 농민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양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지하수고갈방지 전력요금절약 영농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민을 제외하고는 정보부족과 설치예산에 대한 농가부담 등으로 '수막시설 하우스 양수시스템'이라는 시설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지도와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행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지난 1969년 남강댐 건설 이후 50여 년 동안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우리 사천시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피해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명백한 피해가 있고 그 피해의 원인이 남강댐의 방류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많은 근거가 있지만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이 없이 50여 년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환경부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 남강댐의 운영관리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방류에 따른 피해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검증으로 댐 방류 피해를 해소하고 방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천시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화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 등의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경화 의원(국회의원, 사천읍 정동·사남·용현)**

최근 자연 속에서 휴가를 따라 맨발로 걷는 운동이 각광받으며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운동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야생 복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숲길 및 산책로, 둘레길과 생태공원에 휴길 또는 황토길 맨발 코스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면역력 강화가 건강 지키기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면서 휴길 맨발 걷기야말로 새로운 건강 증진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각 지자체마다 지역주민들의 산책코스가 자 관광객을 위한 힐링투어로 휴길 맨발코스 개발과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더욱 뽐낼 수 있도록 관내 맨발걷기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 아줌마처럼 시민 위한 생활 정치 펼칠 것"

김여경 _ 사천시의회 의원

“열정은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낮은 자세로 낮은 생활 속의 시민들을 돌보겠다는 목표로 생활 정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여경(국민의 힘·비례) 사천시의회 의원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줌마 같다. 적잖은 나이에도 푸근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은 보는 이들을 편하게 해준다. 하지만 의정활동만큼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란 한계를 느끼기에 남보다 한 발 더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

📖 비례대표로 사천시의회에 발을 디뎠다.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

누구나 살아가면서 우연한 인연을 만나게 되고, 우연한 기회를 맞이할 때가 있다. 사실 정치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 10여 년 전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입당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핵심당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경남도당 여성부위원장과 사천당협 여성회장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이것이 사천시의회에 발을 디딘 계기가 됐다.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이란 점이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지는 않나.

물론 어려움이 많다. 선출직 의원이 우선인 것처럼 여기는 일부 의원들의 형태와 ‘비례의원’, 비례 주제가 등 서슴없이 내던지는 말을 뒤에서 들을 때 무시하고 넘기지만 씩씩할 때도 있다. 지역민들도 민원을 의뢰할 때 선출직 의원에게 우선적 역할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선출직 의원이 관심 갖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사업이나 풀어내지 못하는 일로 가끔 찾을 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활동에 걸리는 크고 작은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초선의원으로서 전반기 활동을 평가한다면.

크게 내세울만한 활동이나 자랑할 만큼 폭넓은 활동을 했다고 언급하기에는 부끄럽다. 전반기에는 먼저 배우는 자세로 임했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쉬지 않고 달린 것은 사실이다. 지역구가 아닌 비례의원이라 특정 지역이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읍·면·동 두루 시민의 소리를 들으며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찾아내는데 동참했다.

사천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있나

열린 의정, 맑은 의회라고 쓰고 닫힌 의정, 흐릿한 의회로 비춰질까 우려된다. 2년이란 시간을 뒤돌아보면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한 욕심으로 원칙도, 소신도, 명분도 없이 책무를 망각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의원 상호 간에 불신이 커진 현실이기에 뒤엉킨 감정의 골을 풀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반기 원구성 시 시작부터 납득할 수 없는 개인의 밥그릇 싸움에 관행처럼 이어지는 추한 모습들을 열

거하기에는 차마 시민들께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소속 정당의 정체성마저 내던지고 야합 치졸한 행동을 보인 문제 있는 의원도 의회를 저질로 만들었다.

2년간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보람된 것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전반기 2년은 역동적일 때가 많았다. 개인의 치적을 쌓기보다는 폭넓은 활동무대를 그렸고,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발전적 전략을 공유하며 집행기관에 건의를 올리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다수가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년고찰 곤명 다솔사 주변 경관시설, 편의시설, 경내 절 개·보수에는 국·도·시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작 읍지역 소규모 작은 절이지만 18년을 한결같이 소외계층과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전달하고 있는 사천읍성 내 ‘달마사’는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집행기관과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우리 지역에서 당선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김여경이란?

‘철이 늦든 김여경’, 젊은 날 사회봉사단체 활동으로 생활범위를 넓히고 많이 웃고, 리더십이 강하며 당당했다. 개인적인 욕심 없이 남을 돕는데 앞장서 일했고, 주위에서 인정 많다는 평을 들었다.

단점이라면 명든 세상을 향해서는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바른 말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단점도 시민들을 위한 목소리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미용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꼭 필요한 일꾼” ✂

서경애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장

지역 미용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의식 증진에 앞장서는 단체가 있다. 대한미용사회 경남지회 사천시지부. 회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권익향상 뿐만 아니라 애항심으로 뚝뚝 뭉쳐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서경애 지부장을 만나 우리 이웃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약 125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생교육과 모임을 개최하며 미용업 발전과 기술 향상 그리고 회원들의 친목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의 스킨십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걸어온 미용사의 길에 대한 이야기는?

중학교 재학 중 진주에 소재한 축석미용학원 1기를 수료하였다. 이후 사천읍에 소재한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다가 1985년 (구)사천터미널 인근에 경화머리방을 개업하였다. 잠깐 동안 진주로 이전하여 미용업을 하였지만 1987년 다시 삼천포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사천시지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회원들의 역량 강화활동의 일환으로 최신 미용 기술 및 관련 제품 등에 대한 강좌를 1년에 2~3회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의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미용 및 피부 관련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느낀 보람과 아쉬움은?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랑 나눔 미용봉사단’을 조직하여 매달 취약계층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및 피부 봉사활동이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와 서울 국제미용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 2018년 경남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각종 표창을 받은 것 또한 기억에 남는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마음이 아프다.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돌아와 회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한 마디는?

부족한 지회장을 믿고 따라와 준 임원진들과 회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어려움에 함께 소통하는 열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37년 미용 외길 인생을 묵묵히 응원해 준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전하며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지역의 동반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규윤의 가르침이 인간본연의 인문서(人文書)다’

이규윤 곤양향교 전교

전국 234곳의 향교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으로 꼽히는 사천시 곤양면에 소재한 곤양향교. 잔뜩 풀 먹인 도포, 근엄한 탕건, 갓에 휘날리는 도포 자락. 보통 향교의 전교 하면 근엄한 선비의 의상을 입은 것으로 상상하지만 이규윤 전교는 푸근하고 따뜻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다.

전교는 현재 학교의 학교장이라 할 수 있는 자리다. 지난 2016년부터 곤양향교 전교를 맡아 올해로 4년째 곤양향교를 이끌어 오고 있는 이규윤 전교.

그는 “현재 이곳에는 고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초등학교 3곳으로 총 7곳의 학교가 있지만 학생수는 400여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이 400명 중 단 1명이라도 향교의 인성교육을 통해 배움을 깨우칠 수 있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후손들에게 참다운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심기일전 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폐쇄적인 공간쯤으로 인식되고 있는 향교를 공생공영(共生共榮)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공간으로 열어가고 있는 이규윤 전교를 만나보았다.

곤양향교가 전국에서 규모가 작다고 들었다.

곤양향교는 세종대왕의 어태가 안치된 곳으로 조선 시대에는 남해와 하동, 진교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한 사천에 종 4품 군수가 존재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곤양·서포·곤명면 등 인구 1만여 명의 규모로 축소되고 향교 유림도 급감하면서 규모도 작아졌다.

그러나 이곳은 5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60여 년 전에 퇴계 이황선생과 수많은 선비들이 배움을 통해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곳을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곤양향교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은

1박 2일 프로그램인 '향교야 놀자'는 8회 실시로 총 336명이 참가해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예절교육과 다례교육, 선현들에 대한 역사교육 대성전 봉심, 캘리그라피 체험, 유적지 탐방을 통해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영남 선비들의 학문과 선비정신을 함양하는 인문학 강좌로 한국인의 상실된 민족정신을 회복하고 국난 치유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예절 강사들이 각 급 학교에 출강해 선비정신을 되새겨 보는 전통예절 교육인 서예, 예절, 악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교육이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 흥기를 들이대고 사제지간에 주먹이 오가는 세상, 부부 사이를 이어준다는 '믿음'은 이제 경전에서만 볼 수 있는 자구(字句)가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성인과 청소년 구분 없이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될 만큼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옛 성현들이



향교에서 가르치던 내용이 지금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인성교육 그 자체이며, 향교교육이야말로 현대 사회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다.

앞으로의 향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발전 방향은

조선시대 향교는 교육적 기능, 문화적 기능, 정치적 기능을 갖추어 유학교육, 석전례, 기로연, 공무원 양성 등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현재 한국 향교의 존재가치는 단지 성현들의 문묘 배향만이 남게 됐다.

예전에는 향교의 장점인 향약이 있어 가정과 사회교육이 잘 됐으나 현대에는 그러하지 못해 다양한 범죄, 지역기반 황폐, 무질서, 부도덕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깝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아 후계구도의 확립이 안 되고 있어 향교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교육도 현 공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균형 발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향교도 한국 교육의 기초교육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어 향교에서 수행할 수 있는 특성있는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역할이 주어 져야 할 것이다.



진널전망대



한적한 오솔길 따라 진널전망대 한 바퀴 돌며 은빛 고향 바다를 만나러 떠나 볼까요! 가을이 은빛으로 물드는 진널 해변에는 조각해 놓은 명작들이 물빛을 품느라 분주한 가운데 건너편 남일대에는 절정의 순간이 빛어낸 코끼리 한 마리가 천년의 바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한적한 오솔길 따라 진널전망대 한 바퀴 돌며 은빛 고향 바다를 만나러 떠나 볼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완보하며 게을렀던 시선에 채찍질해 주세요.

신항마을 입구에는 긴 수목공원 사이로 터널이 형성되어 전망대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널찍한 주차장에 차를 두시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원점회귀에 안성맞춤인 코스입니다.

진널전망대는 사천시 신항마을 남쪽에 봉긋 솟은 해안 구릉지로 해식과 풍화작용이 조각해 놓은 기묘한 해안 풍광을 품고 있는 명품 산책길입니다. 약 1.5km 남짓 평탄한 산책로는 사통팔달식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코스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방파제 가는 길 중간 산책로를 따라 계단을 오릅니다. 아담하게 정돈된 산책로에는 한려수도 바람이 맛깔스럽게 걸

러 있습니다. 간이의자와 가로등까지 깔끔하게 정비해 놓아 기분마저 상쾌해집니다. 한창 동백이 결실의 절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타닥타닥 숲으로 낙하하는 동백 씨의 소곤거림이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더해 줍니다. 동백꽃 필 무렵 이 길은 온통 절절한 사연이 붉디붉게 피어납니다.

잠시 걸음을 놓아두고 팔포 앞바다를 만납니다. 송림 사이로 목섬과 그 너머 노산까지 그리운 풍경들이 앨범 속에서 살가운 외출을 시작합니다. 전망대 남쪽 해안에도 기묘한 해식동굴이 웅장하게 조각되어 있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곳



방파제는 낚시터로도 유명해 마니아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가을을 담은 바람이 시원하게 구름을 넘어옵니다. 전망대 옆에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깔끔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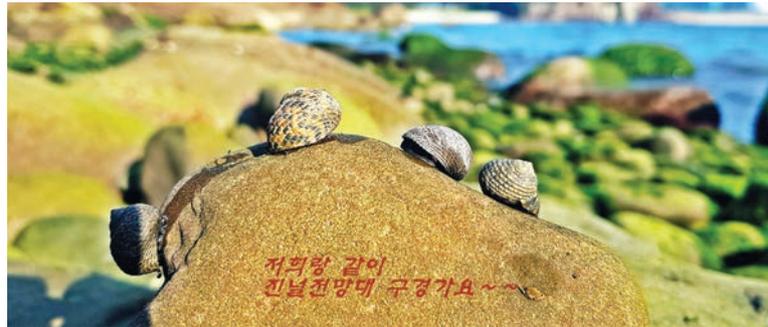
휴식공간도 정갈하고 편안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사색을 하거나 발아래 손짓하는 파도 소리에 마음 한자락 맡겨 두고픈 곳입니다.

마치 행성에서 불시착한 UFO 같이 파랗게 관을 쓴 전망대가 신비감을 더해 줍니다. 도색과 주변 정비를 마친 탓에 한결 더 궁금증을 더해 줍니다.

1층 입구에는 사천이 낳은 서정시인 박재삼 님의 시가 인사를 건넵니다. 신수도와 그 건너 창선도까지 사랑과 그리움을 품은 한려수도 사천 앞바다가 3층 전망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팔포와 창널공원 너머 삼천포대교와 바다 케이블카까지 각산품 넉넉한 자락에서 바람 맛이 참 고운 사천의 가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망원경 속으로 앵글을 던져봅니다. 아득한 그리움이 마당 안으로 안겨옵니다.

은빛으로 일렁이는 바다가 등대불을 밝히는 가을입니다. 남쪽으로 명품 섬 신수도를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은 크고 작은 섬들이 반짝반짝 가을 단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억들이 추억으로 숙성되는 진널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앞 계단을 내려서면 왼쪽으로 시원한 해안산책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진널전망대 동편 해안 절경을 만날 수 있



는 예쁜 산책로입니다. 길 끝에는 신항마을 방파제와 남일대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남파랑 길이 열려 있습니다.

찰랑찰랑 바위를 간지럽히는 파도 소리가 사랑스러운 음향으로 들려옵니다. 숲 사이로 남일대 코끼리바위의 듩직한 긴 코가 바다를 다 삼킬 듯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가을 햇살이 숨어든 비밀의 정원에서 옹기종기 망중한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이 가을보다 더 정겹습니다.

아득해서 좋은 바다. 그 심해의 빛이 빛어낸 명품 해변. 진널전망대 산책로에서 마음 한구석 채워 가세요. 몽돌 사이를 헤집는 물빛들의 여행길 따라 지친 일상의 무게는 허물고 경쾌한 추억의 무게는 차곡차곡 쌓아 가세요. 한반도를 닮았습니다. 이처럼 주변에는 침식으로 그려진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즐비합니다. 숨은 그림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용호

제5기 사천시 SNS서포터즈

삼천포종합시장 맛집
4월, 9일이면 열리는 삼천포종합시장



삼천포종합시장 오래된 맛집투어 떠나요



장수복어



보글보글~ 복국 상차림입니다.
속을 풀어주는 국물이 좋아요. 해장국으로 인기쟁!
뜨끈한 밥에 미나리, 콩나물 넣어서 비벼서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 먹고 복국을 먹어보세요. 환상 조합입니다.
외국인도 좋아하는 맷 밀반찬으로 나오는 김치와 멸치볶음이
특히 맛있답니다. 저의 오래된 단골집입니다^^

용정식당



백반정식집으로 유명한 식당이었지요. 삼천포 사람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줄 서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생선이 귀해지면서 백반정식집에서
국밥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고기국밥, 추어탕 전문**이라고 적혀있어요.
선택은 소고기국밥! 반찬이 엄마 반찬 같아요.
뼈 바른 전어무침도 주시네요.
소고기국밥은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맛과 닮았어요^^
사천시 식당에서 제가 먹어본 소고기국밥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우연히도 유명 김밥 바로 옆집입니다~ 맛집이 나란히 있어요^^

사천시 전통시장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장날의 묘미를 즐길 수 있고
 정겨운 풍경은 덤이지요.
 경남상가들이 깨어하는 장날에는
 볼거리, 먹거리가 넘쳐난답니다.
 그럼 삼천포종합시장 오래된
 맛집투어 가 보실까요?



송미선
 제5기 사천시 SNS서포터즈



유정김밥



생활의 달인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유정김밥입니다.
 수기명부도 작성하고 위생수칙 제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장어 간장에 조린 우영이 들어간 김밥은 달콤한 맛을 냅니다.
 무에 절인 장어로 간장을 만드는데 감말랭이가 짠맛을 잡는다고 해요.
 고기 맛이 나는 이유는? 바로 장어 간장 맛! 부추도 한 맛 거둡니다.
 싱싱한 수산물로 유명한 삼천포항이라 육수 재료도 끝내주는 냉국수도
 인기가 좋습니다. 버섯가루 · 콩가루 묻힌 밴댕이 육수에 다시마, 무, 파,
 생새우까지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깔끔한 육수 맛이 좋아요.
 국수 양도 생각보다 많네요. 김밥 2줄 4000원, 국수 5000원입니다.



항아리 수제비 칼국수

비빔밥이랑 수제비랑 함께 먹어요. 비가 오면 자주 찾게 되는 곳입니다.
 쫄깃 쫄깃 수제비가 맛네요. 조개살, 흥합살도 얼마나 큼지막한 지...
 재료가 싱싱해서 맛은 일단 5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비빔밥은 달걀이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이 솔~솔~~ 재료의 본연의 맛이 좋아서일까요?
 어느새 한 그릇 푹딱~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단!! 일요일 장날에는 영업한다고 해요.



※ 사천시 SNS서포터즈가 작성한 글이며 사천시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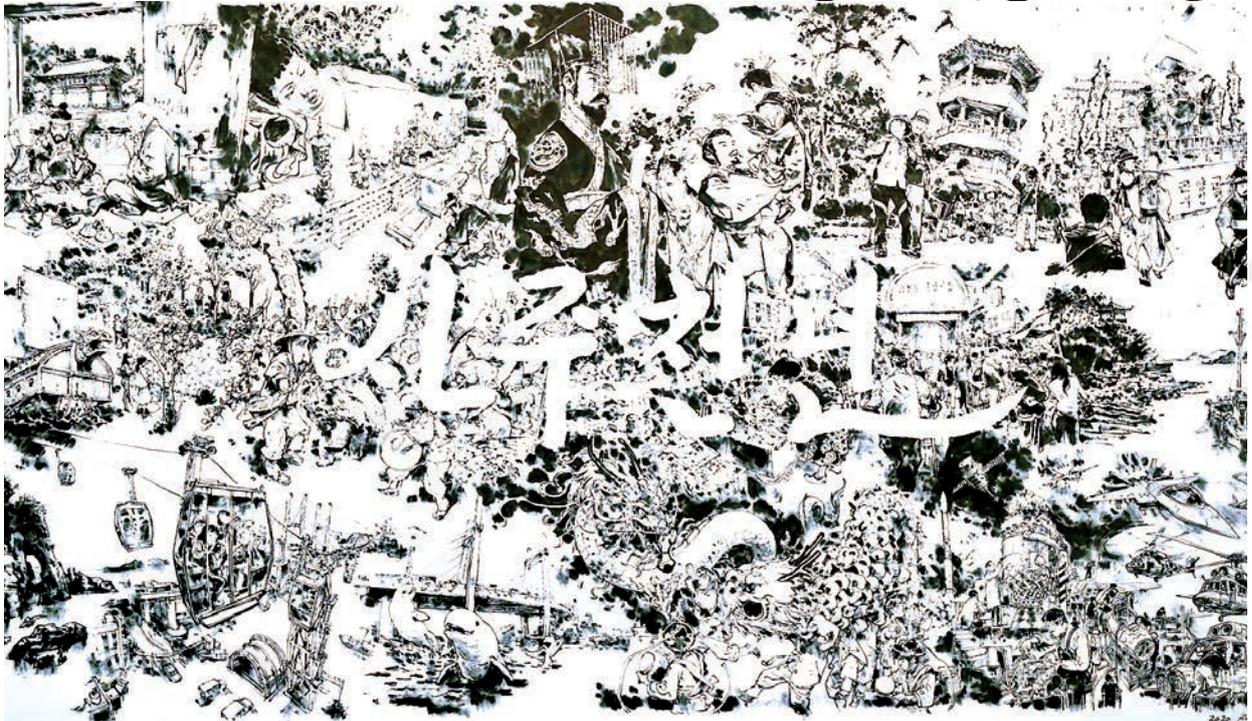
“한국 미래산업의 중심 사천의 모습 담아 갈 것”



국내에서 처음 라이브 드로잉을 시도한 김정기 작가

그는 지난 2011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라이브 드로잉이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폭발적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

기본스케치 틀을 잡지 않은 채 바로 투시를 잡고 기본스케치 없이 부분에서 전체를 그려나가는 김정기 작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소들의 조화로운 배치는 또 어떠한가. 해외에서 적절한 스케일감과 비율로 안정감 있는 그의 그림에 매료되면서 그의 이름 또한 서서히 세계적 작가 대열에 올라섰다. 프랑스·미국·일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2016년 파리에서 개최한 개인전에서는 3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작품들이 거래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만화 작가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2016년 한 석유회사 광고에 등장하면서 특별한(?) 화가로서 관심을 받았다. 라이브 드로잉으로 세계 에너지 지도를 완성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 이후 국내의 굵직한 행사에서 그의 작품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김정기,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2002년에 만화가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2011년에 부천에서의 만화 행사에서 라이브 드로잉을 선 보였던 것이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알려져 이후 ‘드로잉아티스트’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만화 작업을 비롯하여, 출판,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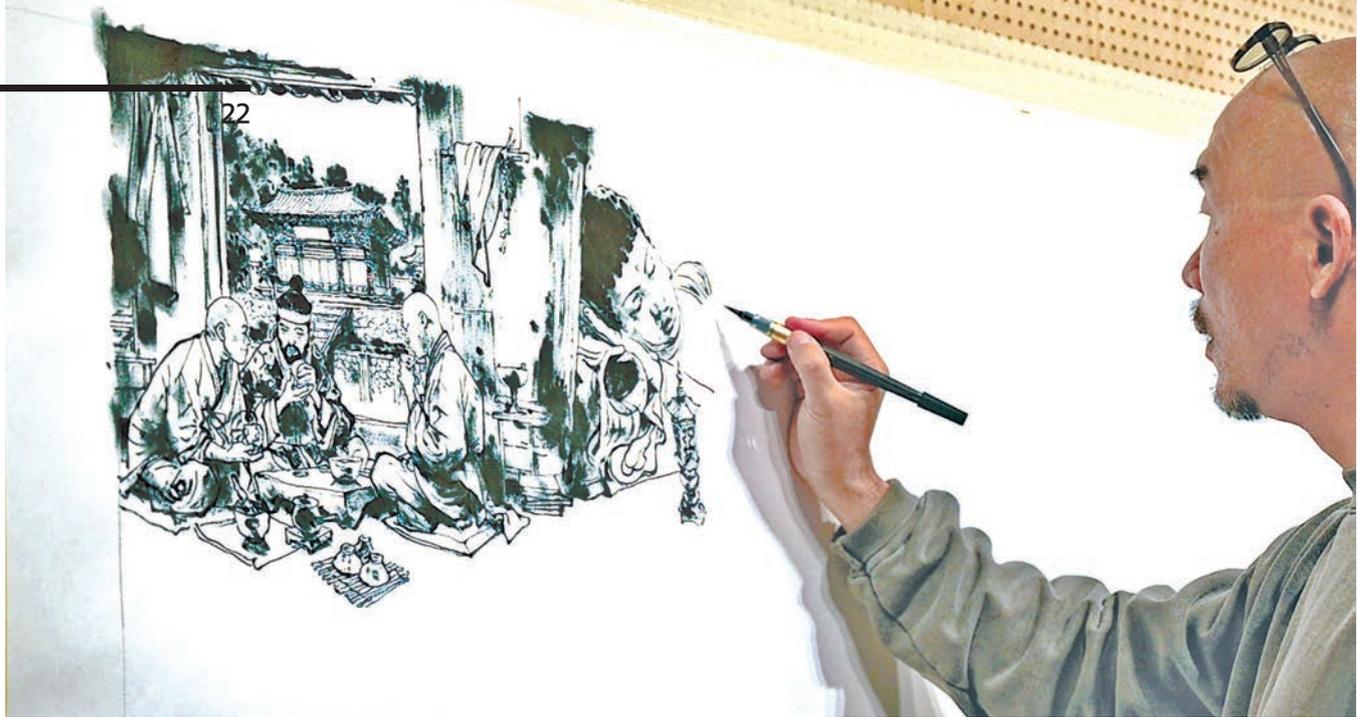
라이브 드로잉, 어떤 것인가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작가들이 해오던 작업 형태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작가들의 작업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결과만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는 모든과정을 공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다른 작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재, 주제의 폭이 조금 더 넓다는 점과 현장에서 보여 주는 속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 라이브의 특징은 대중과의 소통이 가능한 점입니다. 작업실에서 아닌 현장에서 서로 교류하며, 작가의 작품제작의 과정을 지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라이브 드로잉을 하게 됐나요?

2011년에 부천 국제만화 축제에서 주어진 부스 안에서의 전시를 대신하여, 하얀 종이를 벽면에 붙였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려 나갔고, 그것이 유튜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많은 나라에서 초청이 들어왔고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업할 때 어려운 점은?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해오던 저만의 방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거나, 테크닉적으로는 작업에 임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는 역사적 사실 또는 광고에서의 특정한 캐릭터를 그려야 할 때는 그것을 인지하면서 그려야 하기에 조금의 스트레스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즘은 체력적인 부분이 고민입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은?

역시 역사에 관련된 그림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프랑스 앙굴렘 행사때의 전시를 위한 그림이었는데, 마침 NHK에서 관심을 가져 촬영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서 방송은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천에서 작업을 하게 된 인연을 소개한다면? 그리고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공군 70주년 관련 드로잉 작업을 한 후에 사천에

어쇼 팀과의 미팅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천시를 방문하여, 사천의 여러 장소를 안내 받았고, 사천시의 역사를 '사주천년' 이란 주제로 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셨고, 이것을 바탕으로 작품제작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주천년'에는 사천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모두 담을 예정이며, 과거의 모습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희생에 대한 모습과 그것을 바탕으로 사천의 역사는 발전해왔으며, 사천시민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중심으로서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

큰 계획보다는 항상 눈앞에 닥친 일부터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 일들을 순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변함 없이 재미있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는 재미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시의회 첫 의원 연구단체, 문화체육관광 발전 방안 찾는다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 첫 활동인 벤치마킹을 통해 신규 관광정책 제안

사천시의회 의정연구회가 첫 선을 보인다.

사천시의회의 첫 의원 연구단체인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 사천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발전 방안을 찾고자 출범한 연구회는 김여경(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숙(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 김규현(국민의힘, 축동·곤양·곤명·서포), 김영애(무소속, 사천읍·정동·사남·용현), 전재석(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 회장은 김여경 의원이 맡았다.

사천시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시책 연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집행기관에 제안하는 등 사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회의 첫 활동은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신안군 반월도·박지도(피플섬)를 방문하는 등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목포 해상케이블카에서는 각종 편의시설, 공간배치 등 시설현황을 비교 견학하고, 신안군 반월도와 박지도에서는 보라색 하나만으로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뤄낸 비결을 파악했다.

연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삼천포 앞바다 섬마다 색을 입힌 섬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관광분야 신규시책을 발굴했는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구회는 삼천포 앞바다 섬마다 색을 선정한 후 공공 건축물부터 색채감을 가미할 것과 섬마을의 지붕·벽 도색 및 각종 테마꽃 심기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하고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여경 의원은 “연구회의 첫 활동부터 다양한 시책 접목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관광분야 신규 시책을 발굴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원 김여경



의원 김경숙



의원 김규현



의원 김영애



의원 전재석





우리 문화유산 둘러보기

모헌재

곤명면 완사전통시장을 지나 오른쪽으로 금성마을에 들어서면 마을 중앙의 높은 곳에 모헌재(慕軒齋)가 있다. 남명 선생에게 학문을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한평생 충과 효를 실천한 모헌(慕軒) 정이심(鄭以諶, 1590-1656)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후손과 후학이 세운 재실이다.

모헌재에 들어가려면 대문이 있는 관리동을 지나야 한다. 평소에는 관리인이 기거하고, 제향이 있는 날에는 제물을 준비하고 의관을 정제하는 장소로 사용되는데 일반 주택으로 돼 있어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다. 관리동 끝에 솟을대문이 있고 양성문(養性門)이라는 현판이 있다.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군자로서의 심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며 구심양성(求心養性)의 네 글자를 벽에 써 두고 스스로를 경책한 선생의 추상같은 정신을 잇기 위해 붙였다.

제향이 있으면 대문을 열지만, 평소에는 결문으로 출입한다. 단조로우



면서도 깨끗하게 잘 정돈된 마당은 선비의 기상을 담은 듯 군더더기 없이 정갈하다. 제각은 전면 3칸에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전형적인 한옥 양식이다. 건립연도(1998년)가 오래되지 않아 고태(古態)는 없지만 선현을 추앙하기 위해 정성을 들인 흔적은 곳곳에 묻어있다. 현판은 영남의 명필로 추앙받은 은초(隱樵) 정명수(鄭命壽) 선생이 쓰고 기문은 최인찬(崔寅讚) 교수가 지었다.

공은 진양정씨 은열공의 후손으로 1590년(선조 23년) 오봉 정대수(鄭大壽)의 5남 1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자(字)는 신화(愼和)고 호가 모헌이다. 어려서부터 총명이 남달랐고 효성이 극진했으며 형제와의 우애가 돈독했다. 부모상을 당하자 두 번의 삼년상으로 6년이나 시묘살이를 하며 슬퍼하자 무민당(無悶堂) 박인(朴愼)과 동호(東湖) 정제생(鄭悌生) 등이 조문하러 왔다가 슬픔을 조절할 것을 권했다. 상을 끝내고도 ‘부모의 체백(體魄)이 있는 곳을 차마 떠날 수 없다’며 산 아래에 집을 짓고 조석으로 전배(展拜)하며 독서와 궁구를 이어갔다. 이처럼 지극한 효성에 감탄한 동계 정온이 집 이름을 모헌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모헌선생이라 불렀다.

공은 자라면서 곤양군수 이광악(李光岳)의 문하에서 학문을 얻어듣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아 양성(養性)으로 절도(節度)를 삼았다. 젊어서 부모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했다가 등용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음을 알아차리고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 남명 사후에 태어나 남명의 문하에 나가지 못함을 안

타깝게 여기며 독서와 강구(講究)로 평생을 지냈다. 동계, 미수, 겸재 하홍도, 남계 정승윤, 봉강 조겸, 임곡 임진부, 무민당 박인 등과 교유하며 의심나고 모르는 것을 물어 연마했다. 나중에는 남명 문중의 청금록(靑衿錄)을 만들었고, 매달 초하루에 원근의 선비들과 덕천서원에 모여 강회(講會)를 했다. 또 남명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각재(覺齋) 하항(河沆)을 위해 대각서원을 건립하는 일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회봉(晦峰) 하겸진(河謙鎭)은 모헌문집 서문에서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하거든 그 벗을 보라고 했는데 동계 정공과 미수 허공, 겸재 하공이 친구이니 공을 알 수 있겠다’며 ‘청량산 도산서원을 참배하고 덕천 세심정(洗心亭)에 올라서는 늦게 태어난 감회를 드러냈으니 퇴계와 남명을 우리나라 학문의 정종(正宗)으로 삼는 공의 존숭(尊崇)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고 했다. 또 ‘벗이 될 만한 사람을 사귀었고 숨어 살면서도 의리가 밝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룬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한 바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시(詩)에 늠연(凜然)함이 있으니 문장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전하는 바가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11대 종손 인석(仁錫·변호사)씨는 “모헌공 할아버지는 밖으로는 온후한 성정이지만, 안으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추상같은 삶을 사신 분이셨다”며 “우리 후손은 산림처사(山林處士)로서의 지조와 숭정처사(崇禎處士)로서의 충절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헌공의 위패는 공론에 따라 청계서원(淸溪書院)에 안치돼 유림(儒林)이 봉사(奉祀)하고 있으며 20여 수의 시와 서, 찬(贊), 명(銘) 등을 엮은 모헌문집이 있다.



이완용
사천시 곤명면



어때요? 항공산업 25탄

관내 동향

● 수리온, 중앙 119헬기 2대 수주 성공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한 수리온이 중앙119 헬기 수주에 성공
- 당초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기체 도입 비용만 고려하여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된 입찰방식에 반발해 입찰에 불참하였으나, 이번 달 재입찰에 참가하여 수주에 성공
- KAI는 올해 경남소방헬기 1대, 경찰청헬기 1대, 조달청 1대에 이어 이번 10월에 중앙 119헬기 2대를 추가로 수주해 총 5대 민수헬기 수주했음
- 이런 성과가 향후 수리온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에어버스 헬리콥터 생산라인, 내년 프랑스서 경남 사천으로 이전

- 유럽의 항공기 제작 회사인 에어버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의에 따라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헬리콥터(모델명 EC155B1) 생산라인을 내년까지 경남 사천으로 이전
-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패트릭 키 유럽항공안전청(EASA) 청장이 화상 면담을 열고,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생산라인 국내이전과 원활한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월 18일 밝힘
- 이번 업무약정에는 국내에서의 원활한 헬리콥터 생산을 지원하고 시험비행을 허가하는 등의 양측 협력 사항이 담겼으며, 국내에서 제작·인증된 항공제품이 유럽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의 항공당국에서 상호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협의
- 향후 국내에서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생산되면, 국내 항공 제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항공기 정비, 절반은 해외 외주... 지난해 1.2조원 지출

-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해 항공기 정비(MRO) 물량의 절반 가까이 해외에 외주를 준 것으로 확인, 작년 지출 금액만 1조2000억원이 넘음
- 글로벌 MRO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해외로 비용이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
- 해외 항공 정비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으며, 2018년에는 항공사들은 전체 정비비의 54%에 달하는 1조3796억원을 해외 업체에 지출, 2017년에도 1조1733억원(51%)을 지출함
- 그나마 2018년 6월 경남 사천에 항공 정비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KAEMS)가 생기면서 해외 의존도가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 MRO의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나 국내 MRO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국내 MRO 사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불과함



- 일각에선 국제선의 75%가 집중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MRO 클러스트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KAEMS를 중심으로 이미 사천에 항공 클러스트가 조성돼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려움
- 사천에는 한국항공우주(KAI)를 비롯해 보잉과 에어버스 등에 주요 항공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 50여 곳이 모여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항공 전문 인력들도 산업단지에 모여있다는 강점이 있음
- 해외 업체에 정비 수요를 뺏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국내 MRO 산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

2019년도 국내 항공사 정비분야별 총 정비비 및 해외 의존도 단위: 원

동 자료는 각 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자료

분야	총 정비비	해외외주비	해외의존도
기체정비	2420억	869억	36%
엔진·부품	2조84억	1조1253억	57%
운항정비	5117억	458억	9%
계	2조7621억	1조2580억	46%

자료 = 국토교통부

국내 동향

● **'화물기 개조'·'관광 비행'... 항공업계, 생존 몸부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음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는 국내선 취항 확대, 항공권 할인 이벤트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응
-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은 못 가지만 여행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관광비행이 출시됨.
- 아시아나항공은 10월 24일과 25일 국내 상공을 약 2시간씩 비행하는 'A380 관광 비행'을 출시, 대한항공은 국내 상공이 아닌 해외 상공을 비행하는 관광 비행도 검토 중이며, LCC도 제한적인 관광비행을 시작

● **필리핀군, 퇴역 한국 공격·기동헬기 도입 추진**

- 필리핀군이 퇴역한 한국 공격기동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 10월 3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핀 로렌zana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취임 축전에서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도입할 의향을 전달
- 필리핀 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육군 항공의 UH-1H는 지난 7월 퇴역하고 수리온 헬기로 대체됨
- 올해 4분기에 국방부와 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 도입 대상 헬기들에 대한 육안 검사를 진행할 계획



해외 동향

● 볼로콥터, 하늘 나는 항공택시 탑승 예약 받는다

- 독일 스타트업 볼로콥터(Volocopter)가 하늘을 나는 전기 항공택시의 티켓 예약을 시작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9월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
- 일반인 대상으로 전기 충전식 수직 이착륙(VTOL) 차량의 탑승 예약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볼로콥터는 성명을 통해 '볼로퍼스트(VoloFirst)'비행이 향후 2~3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티켓을 구매하면 항공택시 서비스 상용 출시 후 1년 안에 약 15분 동안 볼로콥터 비행을 할 수 있음
- 볼로콥터의 항공택시는 헬리콥터처럼 생겼지만 드론 기술에 기반을 둔 전기 충전식 비행체로, 성인 2명을 태우고 최장 30분 동안 최대 30km까지 비행 가능

● 에어버스, 2035년까지 '무탄소배출 수소비행기' 상용화 예정

- 9월 21일,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는 수소연료전지 항공기를 2035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콘셉트 디자인 3가지를 공개
- 공개된 터보팬 항공기, 터보프롭 항공기, 블렌디드 윙바디 항공기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담아 '제로'라는 코드명을 붙임
- 에어버스는 내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2025년까지 최종콘셉트를 선정, 2035년에는 수소비행기를 상용화해 항공기 탄소배출량을 최대 50% 줄이겠다는 계획
- 한편 영국 제로에이비어의 6인승 수소연료전지 항공기 '파이버 엠클래스'가 9월 24일(현지시간) 첫 시험비행에 성공, 이는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상업용 항공기의 이륙-비행-착륙은 세계 최초임



블렌디드 윙바디 항공기



터보팬 항공기



터보프롭 항공기

길이름 따라 떠나는 사천 이야기

32번째 이야기 구월(龜月)길

사천시에는 많은 도로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로명마다 역사적 의미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구월리는 용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쪽으로 약 1km정도 떨어져 있으며 북으로는 석계리, 동으로는 용치리, 남으로는 덕곡리, 서쪽으로는 송지리와 접하여 있다.

구월리는 ‘마드리’라고도 부르는데 ‘남쪽 산동네’란 뜻이 있으며 옷땀(윗마을)과 건넛땀(건너편에 있는 마을)으로 형성되어 있고 산록변에 마을이 펼쳐져 있다. 합천 이씨(陝川 李氏)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으며 함안 조씨(咸安 趙氏)등 등 몇 개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구월이라는 명칭은 1914년 군·면 합치 분합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시 처음으로 구월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는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의 구(龜)자와 달 월(月)자를 합하여 구월이라 하였다고 한다.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구월리는 옛날부터 먹거리와 땀값이 풍부하므로 비교적 생활이 윤택하여 인심이 후하였던 곳이다. (사천지명지 참조)

도로명은 이러한 역사성의 의미를 담아 “구월길”로 하였다.

사천 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은거행의(隱居行義)

‘은둔의 삶과 의로움을 행하다’

은거행의(隱居行義)는 은둔의 삶과 의로움을 행하는 두 가지의 뜻이다. 은둔의 삶은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학문을 닦는 것이고, 의로움을 행함은 은둔의 삶에서 닦은 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논어》 16권에 있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은거하여 그 뜻을 구하며,
隱居以求其志,
의로움을 행하여 그 도를 행한다.
行義以達其道.

《논어》에 나온 이 글에서 은거이구기지(隱居以求其志)의 은거(隱居)와 행의이달기도(行義以達其道)의 행의(行義)를 합쳐 은거행의(隱居行義)라는 속어가 만들어졌다.

은거행의(隱居行義)라는 말을 회자케 한 글은 당나라 한유가 그의 벗 동소남(董召南)을 예찬하여 지은 노래 <동생행(董生行)>이다. <동생행(董生行)>에서 동소남이 수주(壽州) 안풍(安豐)이라는 고을에 은둔하여 살며, 그 고을 안에서 의로움을 행하였다고 한 노랫말 때문에 은거행의(隱居行義)란 말은 사자성어로 굳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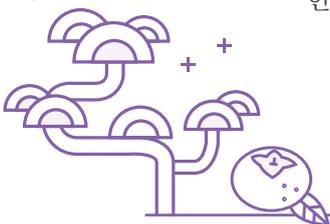
사천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은거행의(隱居行義)한 인물이 많은 곳이다. 그 중 근명의 송림에는 근세에 강용섭(姜庸燮)이란 선비가 있었다. 이 분은 진양 강씨로 호는 송산(松山)이다. 송산(松山)은 송비산(松飛山) 아래의 송림(松林) 마을에 송산정(松山亭)을 짓고 은둔하여 그 고을의 학식 있는 분에게 수업하고 성인(聖人)의 도(道)를 깨달았다. 그리고 명사들과 교류하며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의로운 풍속으로 바꾸어 갔다. 송산의 그러한 정신은 송산의 문집에 남아 전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송산정이 퇴락하자 후손 중에 강재하, 강정현 등이 송산의 정신을 기려 송산정을 다시 중수하고 당시의 문필가 권도용 선생에게 송산정의 기문을 청하였다. 권도용 선생은 기문을 지으면서 “송산은 은거행의(隱居行義)한 군자(君子)”라고 칭송하였다.

어느 지역이건 건전한 풍속 아름다운 문화가 이루어지려면 은거행의(隱居行義)하는 인물이 있어야 한다. 그 지역의 원로가 원로답지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할 때는 그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가 요원할 것이다.

이 갑 규(李甲圭)

한국국학진흥원 교수·한학자





시정 알림 마당

2020년 경상남도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대상** : 경상남도 거주 저소득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 가정 120가구
 - 1)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 가족
 - 2)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구
- **서비스 내용** : 정리수납전문가를 파견하여 주거환경개선(방, 거실, 주방, 베란다 등) 실시 (1일, 8시간)
- **신청기간** : 2020. 9. 7 ~ 11. 30(신청기간 내 접수한 120가구 우선 선발)
- **이용요금** : 1가구 당 3만원
- **신청방법** : 창원YWCA 문의 ☎055)283-9488

가족영상 공모전 신난다 챌린지



- **공모주제** : 가족을 웃음짓게 만드는 모든 영상 (플래시몹, 군무, 개인 또는 가족댄스는 물론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등 영상도 가능)
- **공모자격** : 사천시민 누구나(개인, 팀 모두가능)
- **응모일정** : 접수기간 - 2020. 10. 19. ~ 11. 20.
결과발표 - 2020. 11. 30. 센터홈페이지
시상식 - 12월 중
- **접수방법** :
 - 센터가 제공하는 신난다송을 활용 또는 응용, 15~30초내 영상 제작
 - 나의 SNS에 업로드(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 업로드시 해시태그 꼭 넣기 :
예) #사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영상공모전 #신난다챌린지 #——편
 - 구글폼(QR코드접속)을 통해 신청서 접수
 - ▷ 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제출영상, 업로드영상 URL 주소
- **문의** : 사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832-0349

2020년 경남 대표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 **행사기간** : 2020. 10. 7. ~ 11. 6.
- **참여방법** : 온라인 전용관(<https://jobfair.incruit.com/gyeongnam>) 접속하여 지원 희망업체에 지원서 등록
- **주 최**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행사규모** : 참여기업 59개사, 채용인원 159명

사천-진주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안내



-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월) 부터
- **환승권역** : 사천시, 진주시
- **대상수단** : 시내버스(사천, 진주), 시외버스(삼천포-사천-진주)
- **환승방법** : 교통카드 이용 하차 후, 30분 이내 1회 환승할인
 - ※ 곤양터미널 환승시간 : 60분
- **요금할인** : 시내버스 요금 기준 (일반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

2020년 폐업(예정)자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 **참여대상** : 만 69세 이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폐업 예정자 및 폐업자 (영업 60일 이상, 5년 이내 폐업자 2015. 01. 01 이후)
 - **교육인원** : 선착순 25명(교육비 무료)
 - **교육일정** : 2020. 03. ~ 매월 1회(2일 교육 10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1일 5시간)
- * 교육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료자혜택** :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수료후 취업시)
 - 재기교육비 5만원 지급
 - 개인별 취업 진로상담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 **신청방법** :
 - (주)행복인디제이 (T.070-4418-5645, M.010-8585-1549, F.0504-059-1549)
 - 세무서 서류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 회원가입 후 → 재기교육 호프데이 검색 후 → 신청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규모** : 1,000억원(20만명 *50만원)
- **지원대상** :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 소상공인(다만,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폐업 신고 전 매출이 발생한 자)
- **지원금액** : 50만원 현금 지급
- **지원기간** : 20. 9. 24. ~ 12. 31.)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검색 또는 www.재도전장려금.kr로 접속
- **문의** : 전용 콜센터(1899-1082)



'제4회 사천인권영화제' 개최

사천YWCA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가 주최하는 '제4회 사천인권영화제'가 오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롯데시네마 사천점에서 열린다. 사천인권영화제는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감수성을 확산시켜 차별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번 영화제는 '사람을 품다,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영화제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동, 이주민 등 외면받고 소외된 인권과 관련된 영화 10편을 만나볼 수 있다. 사천인권영화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진행된다. 또한 '좌석 거리두기'를 위해 영화 1편 당 선착순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사천인권영화제의 영화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에 관람 신청은 필수다. 사천인권영화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천인권영화제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사천YWCA 홈페이지에서 네이버폼 링크로 신청하면 된다.

사천어린이도서관 부분 개관 확대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0. 10. 13(화) ~ 
- **운영내용** : 도서 대출 및 반납 열람 좌석 1/3 운영 1~2m 거리두기 프로그램 축소 운영
- **이용자 준수사항** :
 -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 불가
 -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체크 (37.5도 이상 입장불가)
 - 손 소독 후 자료실 입장
 - 도서관 내에서 거리두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및 금액**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 ('19년 이전 창업자)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 '19년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1.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 ('20년 창업자)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디지털배움터에서 교육생 모집

- **교육대상** : 전 국민 누구나
- **교육목적** :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 **교육과정** : 디지털 기초, 생활, 중급, 특별교육 등
- **교육기간** : 2020. 09. ~ 2021. 01

경남지역 대표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 **행사기간** : 2020. 10. 7. ~ 11. 6.
- **참여방법** : 온라인 전용관(<https://jobfair.incruit.com/gyeongnam>) 접속하여 지원 희망업체에 지원서 등록
- **주 최**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행사규모** : 참여기업 59개사, 채용인원 159명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상품 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기부행위는 공식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 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 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을 눌러 주세요.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위·대장암 예방과 관리는 건강검진으로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 100세 시대를 앞둔 현재를 맞아 자신과 가족의 보다 윤택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예방법이다.

특히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암의 조기 발견 및 예방과 더불어 중요한 이유는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간 질환 등 만성질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환은 예방 및 개선을 위해 평상시 생활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어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받아야 한다.

국내 발병률 1, 2위를 다룰 만큼 흔한 위암, 대장암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증상이 시작되어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고 조기 발견은 건강검진은 필수적이다. 실제 위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은 90% 이상일 정도로 치료 예후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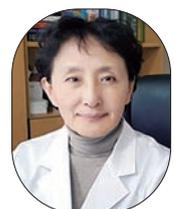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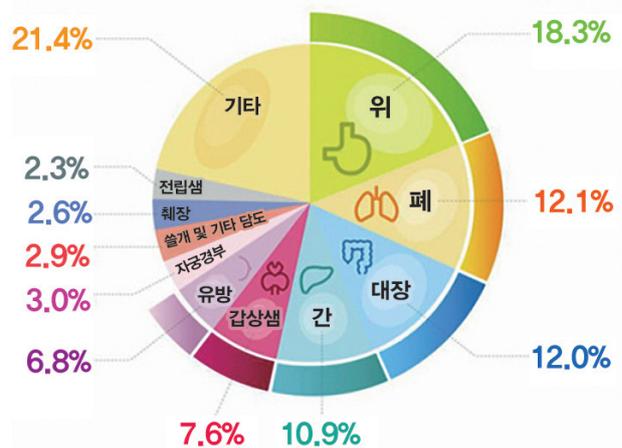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검사 항목과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검사 항목에 속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대장암이나 위암과 같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의 암 진단 나이보다 10년 앞당겨 정기적인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30대의 경우 ‘나는 아직 젊은데 건강에 문제가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많다. 젊은 층이라도 불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특정 질환에 취약한 만큼 본인의 나이만 믿고 건강에 소홀히 하기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총 발생건수 398,824건

(단위 : %)



삼천포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부원장 김 현 자

2020년 추석 풍경

김 남 희(부산시)

부산시인협회 회원

애들아 올 추석엔 내려오지 말아라
 이 말이 신조어가 될 줄 몰랐네
 명절 되기 한 달 전
 행여 기차표 구하기 힘들까
 미리 언질 준 말 한 마디가
 먼 하늘 쳐다보는 사슴 눈 닦아

직장 다니라 학교 다니라
 일 년에 두어 번 명절에나 볼 수 있는
 핵가족 이라는 가족의 의미
 전국을 얼어붙게 하는 코로나 19 때문에
 손주들 얼굴 다 잊고 살겠네

외롭고 쓸쓸한 긴 공휴일
 요리 조리 TV 채널 바꿔 보지만
 바보상자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내 손주들 애교 떠는 몸짓만 할까

미루나무처럼 훌쩍 커서 돌아올 내년을 위해
 버들피리 만들어 재잘 재잘 웃음소리 담아
 시렁위에 올려 두면
 귀여운 내 토끼들 요술 피리에서 폴짝 폴짝 뛰어 나와
 쫓긋 귀를 세우려나





사천의 미래

소중한 아기탄생을 축하합니다

사남면

최한결 (20.8.24.)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환영한다.
사랑해 한결아♥
아빠, 엄마, 누나가♥

아빠 최석룡♥엄마 이경선

사남면

송도운 (20.9.22.)

우리 곁에 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건강하게
바른 사람으로 잘 자라렴~
도운아 사랑한다.♥

아빠 송인주♥엄마 강미숙

사남면

조은우 (20.9.17.)

은우야, 아빠, 엄마에게
와주셔서 고마워.
많이 많이 사랑한다
우리 아들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렴. 사랑해♥

아빠 조현구♥엄마 이서빈

용현면

김건우 (20.9.07.)

건우야, 늦게 만났지만
건강하고 늘 웃고
행복하게 잘 자라다오.
사랑한다.♥

아빠 김대진♥엄마 박지연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글을 보내주세요.
사천소식지에 게재 후, 개별 송부해드립니다.

- 대 상 : 사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내 용 : 아기에게 전하는 축하의 글
 - 신청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아기 출생신고 시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인구정책팀 ☎831-2195